

대학투쟁교차...타결은 불투명

접거농성 121일째 교무처장·교수회 사무실 집기 불태워

학자투

정원 43명...
서울 조경·복지행정·신문방송학과 신설

경주에 지역개발대학원인가

경주에 지역개발대학원인가...
경주에 지역개발대학원인가...
경주에 지역개발대학원인가...

교수11명 학자투 동조농성

교수11명 학자투 동조농성...
교수11명 학자투 동조농성...
교수11명 학자투 동조농성...

“反학자투세력 척결” 시위 계속

“反학자투세력 척결” 시위 계속...
“反학자투세력 척결” 시위 계속...
“反학자투세력 척결” 시위 계속...

신입생 경쟁률 4대1보여

신입생 경쟁률 4대1보여...
신입생 경쟁률 4대1보여...
신입생 경쟁률 4대1보여...

수습기자 추가모집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
社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봉
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①모집인원=서울권퍼스 약간명
- ②응시자격=1學年 男女在學生
- ③모집분야=일반기자 및 사진기자
- ④제출서류=本誌 소재양식 1통, 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출무부 및 학생회관 수취
실서 배부)
- ⑤원서접수=12월 8일 (木) 오후 4時限
- ⑥시험일자=12월 8일 (木) 오후 5時
- ⑦시험과목
1차필기-국어·상식·작문
2차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 ⑧원서제출처=本誌 總무부
- ⑨시험장소=학원관 J 201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급료가 지급됩니다.

東大新聞社

내달 8일 필기시험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
社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봉
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東大新聞社

본사취소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
社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봉
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東大新聞社

본사취소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
社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봉
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東大新聞社

본사취소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
社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봉
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東大新聞社

치아를 건강하게 입안을 상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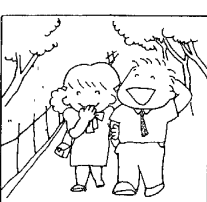
이미 많은 분이

치아건강을 돕는 해태껌노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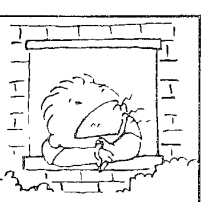
이용하고 계십니다.



●외식 등 식사후에



●데이트를 할 때



●입안이 텁텁할 때



●여행, 낚시, 골프 등 야외에서

솔비톨과 엔자임효과의 해태껌 노노로
치아를 건강하게 입안을 상쾌하게

해태껌 노노는 충치의 원인인 입안 미생물의 작용을
억제하는 엔자임(Enzyme)과 상쾌한 단맛의
당알콜 솔비톨(Sorbitol), 그리고 구취
제거 효과가 뛰어난 염록소가 그
주성분인 치아건강 껌입니다.

- 충치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입냄새 걱정이 없습니다.
- 비만·당뇨 걱정이 없는 완전
무설탕 껌입니다.

●표준소매가격 100원

완전무설탕 껌

해태
노노껌
쥬잉 껌

교수들이 나서야 한다

社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교수들이 나서야 한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수들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한민족의 미래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한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수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한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수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한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尹 青 光

軍작전권은 우리것이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군작전권은 우리것이 되어야 한다. 군작전권이란 군대가 작전할 때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군대가 작전할 때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군대가 작전할 때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군대가 작전할 때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군대가 작전할 때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한민족 조직적 침탈행위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조직적 침탈행위를 저지르려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조직적 침탈행위를 저지르려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조직적 침탈행위를 저지르려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조직적 침탈행위를 저지르려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조직적 침탈행위를 저지르려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개방추진과 민생안정

「인본」이 「국민」이 될 때까지

「권」을 「인」으로 바꾸어라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인본」이 「국민」이 될 때까지, 「권」을 「인」으로 바꾸어라.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인본」이 「국민」이 될 때까지, 「권」을 「인」으로 바꾸어라.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인본」이 「국민」이 될 때까지, 「권」을 「인」으로 바꾸어라.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인본」이 「국민」이 될 때까지, 「권」을 「인」으로 바꾸어라.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인본」이 「국민」이 될 때까지, 「권」을 「인」으로 바꾸어라.

학교·사찰기관합동으로 감시활동 지속돼
상황과 「밥줄」을 핑계로 정당화 될수 없어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학교·사찰기관합동으로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상황과 「밥줄」을 핑계로 정당화 될수 없어.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학교·사찰기관합동으로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상황과 「밥줄」을 핑계로 정당화 될수 없어.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학교·사찰기관합동으로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상황과 「밥줄」을 핑계로 정당화 될수 없어.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학교·사찰기관합동으로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상황과 「밥줄」을 핑계로 정당화 될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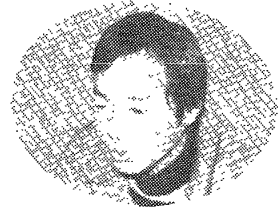
東 國 漫 評
5. 5
선물도 드립니다!
해인상

우리時代를 위한 散文企劃
尹在天 隨筆集
나누고 나누어도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에진서관

외국어로 교육의 선구자
PAGODA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로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해인상
해인상 원고를 헌상 모집합니다
제2회 해인상 원고를 모집합니다.
민족 종교로서의 불교가 이 땅의 얼을 되찾고
그 역할을 다하게 하려는 취지 아래, 해인상을 창설한 원간 「해인」은 지난 봄에
이미 각 부문에 걸쳐 다섯 사람의 수상자를 낸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두번째로 창신하고 의기에 찬 새로운 분들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징계철회—교수회재결성이 학·자·투 수습,"

[illegible]

노명호

학원자주에 교수·학생따로 있을수 없다

교수회칙 스스로 입지의 폭 축소시켜

一、**한글의 원리** 한글은 천지인간의 만물을 본래의 모양대로 나타내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즉, 하늘의 모양은 둥글고, 땅의 모양은 평평하며, 사람의 몸은 세로로 길고, 물의 흐름은 휘어지는 모양이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본따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각각 하나의 모양으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二、**한글의 구성** 한글은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으로 구성된다. 이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한다. 또한, 'ㄷ, ㅌ'와 같은 쌍자음과 'ㅗ, ㅜ'와 같은 이중모음도 포함된다.

三、**한글의 특징** 한글은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언어와 달리,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四、**한글의 장점** 한글은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언어와 달리,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五、**한글의 단점** 한글은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언어와 달리,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六、**한글의 미래** 한글은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언어와 달리,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七、**한글의 결론** 한글은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언어와 달리,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八、**한글의 요약** 한글은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언어와 달리,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九、**한글의 정리** 한글은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언어와 달리,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十、**한글의 결론** 한글은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언어와 달리, '가, 나, 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ㄱ, ㅋ, ㆁ'과 같은 기본 자음과 'ㅏ, ㅑ'와 같은 기본 모음만을 사용한다.

◇참석자◇
 金泰俊 교수 ◇문대·불교과
 吳亨根 교수 ◇불교대·불교과
 박희승 ◇대우증권 석사과정 사회학과
 노병호 ◇아산경제 경제학과
 ◇사회◇
 林秀炫 ◇本社 취재부장
 ◇일시◇ 11월 28일
 ◇장소◇ 부산사주간설

[illegible]

김... 교수의 할일을 다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선후까지기 보다 극한투쟁양상 화해분위기로... 오
박... 합의사항 이행 못한 근본 원인 규명해내길
반학자투세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파헤쳐야... 노

[illegible]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설립 10주년 기념
금장학회 (가칭) 장학기금 조성 취지문

개교 8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국대학교가 신라의 고도 경주에 경주캠퍼스를 설립한 지 1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경주뿐만 아니라 영남일대와 전국에까지 그 교세와 명성이 날로 새로

특히 설립 10주년을 되는 올해에는 기존의 학부병원과 더불어 지난 10월초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기공식이 있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포항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개원되어 리대학의 질적·양적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커다란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환경·문화·노동·여성·청소년·가족위원회 1주년을 맞아 「국민의 힘」을 위한 장학금의 조성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뜻깊은 일로서 이미 경주캠퍼스에서 10주년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노는 추진된 바 있었고, 이러한 취지가 대외에 전해지자 맨 먼저 본교 경주캠퍼스역각 동문회에서도 장학기금을 위한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현재 상당금액이 속속 적립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대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를 위하여, 필연적인 조건인 자본주의 제2단계로서의 산업적인 위상을 정립하여 본 경주캠퍼스의 지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하오니 모쪼록 동곡을 사랑하는 높은신 뜻으로 장학기금 조성에 각별하신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주캠퍼스 설립 10주년 기념
금장학회(가칭) 운영위원 임명

1988년 11월 2일

성명서

변혁기 민중언론의 인도적 과제를 안고있는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회"는 작금에 계속되는 대학언론과 민중인사, 단체에 대한 헌정권의 각종 정권유지적 탄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천명한다.

이 땅 변혁의 주체인 민중이 제시하는 자주·민주·통일의 과제에 대한 실천적 물부림으로서 그동안 "전국대학신문"에서는 북한관계의 올바른 재인식을 위한 제반기회를 마련해 왔었다. 이는 다름아닌 민족통일적 관점에서 선행해야 할 과제가 통일의 한 주체인 북한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한 까닭이다.

그러나 헌정권을 해방후 대를 물린 친미독재정권의 도구로써 한국정치의 반민주적 반통일적 성격을 지탱해온 국가보안법을 이용, 대학신문필자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탄압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국가보안법」의 테두리안에서 파쇼폭압기구인「안기부」,「보안사」등의 "경정적 수사실적"에 희생된 숏한 양심인의 단발마적 비명을 들어 왔으며, 이제 법집행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민족의 절절한 염원인 민족화해와 통일이 위협당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화원후 1980년 국회차지 해산된 상황에서 반공법을 통합해 5공화국 7년의 학정동안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은 법체계에서도 7조1항의「반국가단체 찬양·동조·고무죄」가 주관에 따라 해석이 좌우될뿐 아니라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학문·양심의 자유"에 배치되는 등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또한, 그 적용의 면에 있어서도 누구를 위한 분단이다, 누구를 위한 반공인가 하는 민족적, 계급적 갈등을 억누르고, 정권의 가식적 대북정책은「통일을 위한 일대영단」으로 선전하는 반면 국민의 구체적인 요구와 행동은 체제전복, 용공사범으로 매도하는 초법적 통치행위를 벌여왔다.

결국「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정당한 정치참여와 통일의지를 박해할 시기고 정권유지를 국가체제유지란 말로 호도하는「특대보안법」에 다를 바안 것이다.

이에 "전대기련"은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비호되는 최근의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탄압이 대 사회주의적 전·점과 통일영원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반공미테올로기로 지켜내기 위한 정권의 반민주·반통일적 작태임에 인식을 함께한다.

따라서 "전대기련"은「국가보안법」의 전면철폐로 빼앗긴 권리를 민중에게 귀속시키는 제반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와함께「국가보안법」을 위한 제각각의 판단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내고 조국통일 투쟁을 힘차게 다그쳐나갈것을 천명한다.

이는 앞으로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회"의 강고한 단결을 통해 민중언론, 정론직필의 기치아래 실천할 것이다.

분단조국 44년 11월 21일

분단조국 44년 11월 21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